

흠어진 나그네(벧전 1:1-2)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두루 흠어진 나그네 곧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벧전 1:1-2)

베드로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 받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른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흠어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단순히 시적인 것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결코 단순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한 마디로 요약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는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만일 한 곳에서 정착하려 한다면 그는 이미 나그네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늘의 왕국을 소망 삼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결코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머물고자 한다면 이미 하늘의 영광을 포기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그네로서의 삶에 가장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나그네로서 더욱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안겨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결코 많은 짐을 가지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나그네라고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진정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그리고 과거에 누렸던 모든 영광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빌 3:5-9) 지금 우리는 나그네로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현재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그 많은 짐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산 소망(벧전 1: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벧전 1:3)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나그네 된 자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소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헛된 꿈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또와 같은 복권을 손에 들고 그 행운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게임장을 드나들며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고, 남들의 성공담을 주의 깊게 들으며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자신에게도 일어나기를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헛된 꿈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소망마저 없다면 세상을 살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소망은 곧 엄청난 좌절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세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오히려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자기를 따르면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손짓하지만 오히려 커다란 아픔만을 남긴 채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소망을 안겨다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또한 이 땅을 살면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너희를 위해 마련된(벧전 1:4)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벧전 1:4)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들...너무도 흥분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하늘이며, 그것을 한 마디로 상속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것을 물려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받을 상속은 누구의 것을 상속 받는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두말한 나위 없이 아름답고 풍성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당할 인내의 시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많은 상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오히려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스테반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는 자신들을 향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오히려 기쁨이 가득한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결코 슬픔 속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아닌 전쟁에서 승리한 개신장군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는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 질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라합과 같은 이들은 성경 안에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히 11:).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도 오직 하늘의 상을 바라 본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장차 얻을 상속 유업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결코 좌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는 그 속에서 더욱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상속 유업은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상속 유업과,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세상에서의 모진 고난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마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겪게 될 잠시 동안의 고통은 장차 우리를 더욱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까닭에 우리는 고난을 당함으로 더욱 행복한 자들입니다.

예비된 구원(벧전 1:5)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벧전 1:5)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점차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 모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격한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옳은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 대상이 결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구원이 순간순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비된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 구원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과, 또한 지나치게 그 구원을 확인하려는 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그 확인 작업을 위해서 과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겨 주고 결국 시험에 들거나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씨를 뿌린 후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열매를 맺는 삶과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일회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더욱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은 분명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구원은 결코 잃을 수 없으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믿음의 단련(벧전 1:6-7)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제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1:6-7)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시험들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보면 핍박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집단들을 멸망시키기도 했으며,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문과 살인행위를 수도 없이 저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을 주도했던 사탄은 일을 진행하고 난 후에는 언제나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믿는 자들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더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사탄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핍박을 통하여 그의 계획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진리를 변질시킴으로써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속여서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사탄의 활동이 자신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시험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시험은 믿음을 단련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단련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순간 얻게 되는 구원을 염두 해 둔 것이라기보다는 확신을 갖는데 필요한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있으면서도 확신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의심을 하고, 또한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하여 단련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금은 불로 몇 번의 정제를 통하여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제되는가는 순수함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많은 시험의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그 온전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그 일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날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생애를 살아왔던 지난 날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더욱 온전해 질 것이며, 장차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말(벧전 1:8-9)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데도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벧전 1:8-9)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진정 주님을 본 적이 있는가? 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를 만나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의 믿음이 잘 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기도원에 올라가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며, 작정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주님을 직접 목격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하여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으며, 기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중에도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를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흙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고, 또 세월이 지나면 몸이 흙으로 변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물들에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호흡(영)을 불어 넣으시자 살아 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오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이 혼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사람들 사이에 이어져 왔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의 혼은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며, 이것은 또한 모든 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 물질과 지식과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결말은 곧 혼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에 관하여(벧전 1:10-12)

이 혼의 구원의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벧전 1:10-12)

왜 종교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가장 큰 원인을 들자면 사탄의 교묘한 술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자신이 사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하여 매우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까닭에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이는 대언자들에게도 여전히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혼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시대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당연히 율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소중한 역사적 자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답은 비슷해 보여도 정답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있을 영광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소개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지목하고 자신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5:39,46).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복음은 성령님과 더불어 전하여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딤후 3:16)이기 때문에 영으로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고전 3:13). 사람들은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와 혼합해서 변질된 것으로 가르치기를 즐겨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은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늘에서조차 흠모할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억지로 해석을 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변질시키려 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혼이 구원되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갈망하다가 죽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서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지어다(벧전 1: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베드로전서 1:13)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현재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코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까닭에 소망을 말함에 있어서 ‘끝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가진 자의 자세는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긴장을 하고 힘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바벨을 들기 위해 허리를 단단히 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허리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욱 강한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즉 소망을 가진 자는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집요하리만큼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소망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강한 마음으로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정신을 잃는 것은 곧 마음의 상태가 중심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고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은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지녀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탄의 먹이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당연히 사탄의 공격을 피하고 언제나 깨어 있어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져 오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견디어 낸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이기고도 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일 장차 받게 될 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사에 우유부단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받게 될 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할지니라(벧전 1:14-16)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지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벧전 1:14-16)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는 어느 세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의 추구가 바로 선한 삶을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거룩한 삶이 그들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거룩한 삶은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 된 자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닮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레 11:44-45). 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정죄하려 한다면 그는 복음을 매우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더욱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물론 거룩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기준에서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 헌금을 잘 하는 자, 기도를 잘하는 자, 봉사를 잘 하는 자, 전도를 잘 하는 자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 것을 명령합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 뿐 만이 아닌 생활 속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생활화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벧전 1:17)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벧전 1:17)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외모가 출중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 반하여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고, 그는 결국 마지막은 비참하게도 불명예스럽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진작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증거 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선 그의 모습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초라한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통하여 다른 이들로부터 주목 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과 자동차, 화려한 옷과 보석과 장신구들은 사람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적당한 물질과 명예가 주어지면 자신을 단장하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모습은 매우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검소하면서도 단정한 모습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입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도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외모를 치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명예, 물질, 지식과 심지어 권세까지도 얻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다가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 일생을 보내고 순교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도 그의 인생을 잘 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비록 육신적으로 약해지는 길을 택했지만 내면은 누구보다도 더욱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벧전 1:18-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속의 사건은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세상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살 수 있었지만 새 생명을 얻고 또한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부터 구속함을 얻은 것일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고 또한 삶의 훈련을 통하여 자신을 만들었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누군가의 지배 아래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인들, 심지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도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말이나 혹은 전통을 따라 그들 자신의 삶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으로부터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옥으로 향하는 심판을 면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자는 돈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 할 것입니다. 명예나 권세를 가진 자는 그들의 가진 지위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학문적 논리로 스스로가 구원 받았음을 확신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즉 구원의 길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나 방법들은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거짓 전도자들이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을 얻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하게 된다면 주님 오실 날에 영광스러운 날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정하여졌으되(벧전 1:20-21)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1:20-21)

미리 정하여졌다는 말을 요약하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독교회 안에는 이 예정 교리로 인하여 성경이 오해되고 심지어 구원의 교리까지 적용이 되면서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정 교리의 적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여지셔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까닭에 주님께서서는 공생애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수 차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포함한 회중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산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죄 값을 치를 희생물로 준비하고 계셨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보며 성급한 판단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상황을 연출하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즉 이미 죄 지을 자를 창조하시고 미리 예수님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계획을 하는 것과 조종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시기로 한 주님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디. 누가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지금도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령을 믿는 이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믿는 자들의 몸을 성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자 하지만 주님은 더욱 그들 가운데서 활동하십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더 넘쳤다고 기록했겠습니까?(롬 5:20)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벧전 1:22)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벧전 1:22)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추구할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이 공식을 우리의 삶에 적절히 대입하지 못한다면 결코 거짓 없는 사랑의 경지에 이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이 공식을 매우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가르침이 진리의 말씀, 혹은 교리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지니기 원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요가나 수행 등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려 힘쓰고 있지만 그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순간적으로는 깨끗해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다시 세상 안으로 내보내지게 될 때 자신이 결코 깨끗한 혼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혼을 깨끗이 한 자는 형제들을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없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사랑에도 가식적인 것, 즉 거짓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사람들이 자신들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각종 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지닌 자들의 자세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뜨겁게...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지만 진리 안에서 혼이 깨끗한 자들이라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랑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매우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공식을 따라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벧전 1:23)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벧전 1:23)

다시 태어난 다는 말, 즉 거듭 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육으로 한 번 태어난 상태이지만 영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 번 태어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일반적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 때문입니다. 종교는 육신의 수양을 통하여 하늘의 왕국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기독교는 육신은 죽어 땅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영을 살려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듭남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내용만을 뽑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영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접기도나 개인 간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는 그 자체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밭에 심겨졌을 때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의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변합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대부분 변질이 되며, 시대의 흐름과 아울러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것이며, 또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의하여 사람들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훌륭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가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는 이후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벧전 1:24-25)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4-25)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인생을 풀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파릇파릇한 모습을 지녀 한 때는 매우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동안 얻은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잠시 그 향기에 취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가 비록 구원을 얻지 못한 자일지라도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간 자들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그의 전기를 만들어 자신들의 생애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매우 냉정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소망은 결국 말라 죽게 될 것이며, 그들이 세상에서 비록 영광스럽게 살았을지라도 그 영광은 곧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형체조차 남겨두지 않은 채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게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비록 다른 이들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그들의 생명은 얻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었고, 그들의 혼은 지옥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불 호수에 빠뜨려지게 되어 완전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육체는 우리의 혼을 살려내는 일들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영원함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그 효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영원함의 가치를 지닌 말씀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주님의 왕국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일들에 대하여 보상을 더 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도덕적 교훈이나 철학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목격하셨습니까? 혹은 종교적 전통이나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도록 권면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잠시 동안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줄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변화된 삶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동안의 효과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광스러운 생애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벧전 2:1-2)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2:1-2)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기에 앞서 다른 변개된 성경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변개된 성경은 말씀의 순수한 젖(the sincere milk of the word)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crave pure spiritual milk)으로 바꾸었고,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grow thereby)는 구절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grow up in your salvation)는 구절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엄청난 교리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신앙이 자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얻어지는 일회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침례를 한 번 받듯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도 일회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자라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탄생을 할 때 모태에서 나왔다 들어 갔다를 반복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단 한번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을 정해두고 잃기도 하고 얻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추구하는 것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장성하기까지 그는 어머니의 젖만을 사모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가 취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도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하려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 일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어린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고를 내지 않는 다면 다행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머니의 젖을 잘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에게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이는 일에 충실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우심(벧전 2:3)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벧전 2:3)

우리는 과연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는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순간 반드시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거듭 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자들입니다. 만일 이러한 감격 없이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는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구원을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얻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며,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도덕이나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을 보이기도 하며, 매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결코 까다롭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귀들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구원을 얻는 조건의 전부입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어떤 거짓 전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한 것이며, 그것은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믿는 이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매우 놀라운 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수 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욱 자신을 낮추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부디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산 돌(벧전 2:4-5)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 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벧전 2:4-5)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도 여전히 돌은 건물을 짓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산 돌로 표현한 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게 된다면 그곳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곧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산 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짓는데 쓰이는 재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하나하나가 보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돌들이 조화롭고 견고하게 쌓아져 갈 때에 건물은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는 결코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튼튼하게 서 있을 때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집을 지어가는 성도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입니까?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일 죄의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그들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까닭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새로운 신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거룩한 삶에 그치지 않고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증보자로서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명령을 부여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퉁이 돌(벧전 2:6)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벧전 2:6-8)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퉁이 돌은 집을 짓는데 기초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되실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이 기록된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교회 안에 속하지 아니하면 더욱 이상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지을 집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보배로울 수밖에 없지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매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자들의 의도대로 다듬어 쓰기에는 너무도 불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 예수님을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인생을 결정해 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보배로운 분으로 모시고 살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들의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은 기본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 안에 모퉁이 돌,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두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세, 지식 등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마음 안에 집을 짓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마음 안에 모퉁이 돌을 두고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성장에만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운영해간다면 결국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갈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에 건축하는 지혜로운 성도이자, 올바른 주님의 교회 모습입니다. 모퉁이 돌에 집을 지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까닭에 성경은 이 정체성에 대하여 매우 명료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는 분명히 성공적인 생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여 소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는 세상을 허무하게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선정된 세대로 규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오늘날을 살아간다는 것은 실로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대가 왜 특별한 것입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한 그들은 구원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성령 또한 그들 가운데 임하다가도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성령 또한 그들 가운데 임하여 평생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중보를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죄인인 그들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화해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왕가의 자녀로서 전할 수 있는 권위와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만 왕의 왕 되신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모여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 반목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왕국에 속한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한 백성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왔다가는 인생을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 것이고,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통치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는(벧전 2:10)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흠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공흠을 얻었느니라(벧전 2:10)

인생에서 신분이 변한다는 것은 그리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분의 상승을 원하고 또한 자유롭지 못한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좌절과 아픔만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 까닭에 우리의 신분 역시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분의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실제로 그들의 신분은 이미 죽음을 선고 받은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성공할 확률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드디어 인생을 바꿀만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뀌지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불 호수에 던져질 신분에서 이제는 장차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며, 우리가 그 신분을 얻기 위해 미리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고, 그 일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고백하면 신분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공흠을 전혀 얻을 수 없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흠 아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일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지만 그 신분의 변화는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다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자신이 훌륭한 집안에서 자라지 못했을지라도 자녀들에게는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실망만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천한 신분으로 있을지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신분보다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벧전 2:11)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벧전 2:11)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 까닭에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욕심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한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이미 하늘의 왕국을 소망 삼고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한다면 역시 육체의 정욕일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장차 썩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도록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지식이 풍부하면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의 인생은 대부분 그 소유로 인하여 더욱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정욕들은 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둬나지 못한 혼은 육체의 정욕을 탐하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잠시 즐거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거둬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체의 정욕들은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가진 육체적인 모든 조건들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과 명예, 그리고 많은 지식들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버리기보다는 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자가 되고, 때로는 세상의 명예나 적당한 지위, 또는 지식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따라 가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들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거기에 안주하려 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직하라(벧전 2:12)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 2:12)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직함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정직함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십시오. 그분은 많은 것을 약속 하셨으며,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려고 하는 오늘날의 지도자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굳이 정직하지 않아도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속을 번복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것도 정당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작은 거짓말에 대해서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드리기로 약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번복하고 사람들 몰래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주님께 드리는 부정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베드로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차례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고사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너그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사탄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거짓말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범죄 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많은 자들을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정직해야만 합니다. 이 정직은 결코 말로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나타나는 정직함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영광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상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것이며,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참고 견뎌 낼 수만 있다면 매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비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허공에 외쳐대는

가르침보다도 더욱 큰 결실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삶이 바로 최고의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벧전 2:13-15)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2:13-15)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자격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당한 자임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입장을 보이셨는데 제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도 있습니다. 이 후에 성경 안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든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아무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함에 있어서 사람의 모든 규례에 대하여 복종하고, 세상의 왕과 총독들에 대하여 결코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과 통독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규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백하게 그들의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도 비슷한 구절을 만날 수 있는데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딤후 2:1-2). 물론 그 당시 권위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에 대하여 많은 편견 속에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비판을 일삼으며, 때로는 그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 평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더욱 원만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복음이 순수하게 증거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롭기를

기도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벧전 2:16-17)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벧전 2:16-17)

진리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스러운 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장차 다가 올 세상을 바라보며 기쁨 속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스러운 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차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할 자로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기초는 사랑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바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들에 대하여 존경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겸손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최종의 목적지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서로가 견제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교회들을 대적하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때로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연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하는 모습들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차 다가 올 세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는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또한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통치자 노릇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을 함으로서 장차 세상을 다스릴 때에 보다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통치자 역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복종하는 자세는 곧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종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주인들에게 복종하라(벧전 2:18)

중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벧전 2:18)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명령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해 할 수 없기 보다는 오히려 지키기 힘든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옳은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원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로 결론 지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결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들이 주인들에게 대하여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 대해서도 복종하라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음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명령에 대하여 결코 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직장 상사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임합니까? 그들은 과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또한 언제나 복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들은 억지로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시키는 일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자세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장 상사에 대하여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세상에서 종의 자세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자신의 종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에서 종의 훈련을 통하여 장차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있을 때 우리를 보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었지만 평생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곁에 머물고 있었던 시간에는 온 힘을 다해 복종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모습을 통하여 장차 위대한 왕이 될 다윗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종의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결코 주님 앞에 훌륭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가 종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삶을 통해 얼마나 복종의 훈련을 잘 감당해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서는 장차 우리에게 보다 큰 사명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것(벧전 2:19-20)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 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나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것이니라(벧전 2:19-20)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하려 드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작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탄의 직접적인 간섭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마귀 들린 한 소녀의 병을 고쳐 주었을 때 그 행위는 매우 선한 것이었습니다. 한 소녀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로 인하여 재물을 쌓았던 자는 모함을 하여 바울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함으로서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잠시 당한 고난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사건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항하여 나병에 걸린 미리암이나,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속여 제물을 일부만 드려서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말며, 또한 두려워하지도 말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들이 당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장차 다가 올 세상에서 많은 상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은 그들이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강을 건너기도 작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요단강은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을 향해 발길을 옮겼을 때 강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는 분명해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수치스럽지 않게 보다 담대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 오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본(벧전 2:21)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벧전 2:21)

고난을 당하고 참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것보다 매사에 형통한 삶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가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든 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종교에 기대어 낫기를 구하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구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명예나 권세를 위해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구해서 나았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먹이기도 하셨던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단순히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답은 바로 죽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하시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결코 죽으실 수 없노라고 붙들기도 했으며, 실제로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직업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죽으심을 바라보면 경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순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신변에 고난의 시간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피하고, 적당히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여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길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수없이 매를 맞고 풍랑의 위험을 지나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 길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야고보와 스테반도 자신들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그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동안 행복했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본Ⅱ(벧전 2:22)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벧전 2:22)

예수님의 성품은 곧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까닭에 이미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진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성품을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죄의 모습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범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양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결코 남용하신 적이 없으셨고, 오히려 육신을 지니신 분이셨기에 더욱 신중한 생활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 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죄와 상관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은 입에 교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에 교활함이 있다는 것은 곧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마음을 훔치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높이려 하거나 거짓을 말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해서 그들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존재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적당한 거짓말은 용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기름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본Ⅲ(벧전 2:23)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벧전 2:23)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욕을 당하시거나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욕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본을 삼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욕을 하시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이에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아래 지켜져 왔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법들이 대부분 성경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그만큼 보상해야 하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몸으로 그 갚을 대신 치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한 자에게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두어 살인자를 죽였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자에게는 벌금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으로 자리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율법에 근거한 세상의 법들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욕하는 자들을 위해 오히려 복을 빌어 주었고, 핍박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순한 어린 양이 되어 순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본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세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욕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교회의 연합된 힘으로 그들 세력을 억압하려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로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의 권한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세상 법정에도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거나 또한 보복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욕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방어하는 자세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스테반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모인 자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들에게 험악한 표정으로 응징할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습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모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Ⅳ(벧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 2:24)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수모를 당하시고 죽으실 필요까지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친히 오셨다는 말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히 오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존재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주님의 죄 사함을 통한 방법이 아닌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보겠다는 생각으로 탑을 세우고, 스스로를 수련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구원에 이른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디서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에 친히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드렸듯이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모습은 바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번제 단 위에서 피 흘리는 양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시기에 앞서서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더욱 참담합니다. 갈고리가 달려 있는 채찍에 맞으시면서 한 번 맞으실 때마다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혹은 병든 육신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려면 그분께서 당한 짐을 대신 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들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목숨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목자요 감독이신 분(벧전 2:25)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느니라(벧전 2:25)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종 이단들의 집요한 공격과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야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주님을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양들이 먹을 푸른 초장을 찾아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에게 눈을 고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양의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가려고 한다면 그는 목자로부터 잃은 양이 되어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리로부터 떨어져 헤매고 있습니까? 그들의 대부분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려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일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수록 더욱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 낼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또한 우리의 감독이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독의 역할이 단순히 지키고 감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독은 우리의 잘 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훈계하는 일을 합니다. 즉 주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계셨으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어김없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때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독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는 결코 올바른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짓는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부실해서 결국 재난이 닥칠 때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바르게 짓기 원한다면 주님의 감독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돕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또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아(벧전 3:1-2)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눈여겨보느니라(벧전 3:1-2)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을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에 여성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여인들이 남편에게 대하여 불순종하는 생활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까닭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통하여 사랑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장차 다가 올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실 것이며, 우리는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며, 아름답고 풍성한 천국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가정이 소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가정이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체시켜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고,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를 외면하고 홀로 외로이 죽게 만드는 모습도 목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가정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차 다가 올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정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을 평가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아내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얼마나 교양이 있고, 정숙한 여인인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로 가난해도 한 가정의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녀로 인하여 그 가정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녀의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로서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전체와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욕을 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녀가 덕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아Ⅱ(벧전 3:3-4)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빗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 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벧전 3:3-4)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의 외모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옷이나 보석으로 꾸미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자신들만의 미적 기준을 정해 두고 각종 성형 수술 등을 통해서 얼굴과 몸을 교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사람들만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대중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외모가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는 외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한 육신에 속한 세상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외적인 문제로 성도들 간에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서로가 판단하며 정죄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을 지나치게 치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만드는 일에 대하여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많은 교회들이 남자나 여자들의 외모에 대하여 기준을 정해두기도 했습니다. 남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정장을 하도록 하며, 여자들은 긴 치마에 화려하지 않은 검은 바탕의 옷을 입도록 권장하는 일입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 보석이 달린 목걸이나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을 절제하도록 권하였고, 지나치게 살이 드러나는 민소매 옷이나 목이 깊게 파인 드레스 입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것은 비록 성경에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 가르쳐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비록 훌륭한 것이기는 하지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된다면 차라리 가르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하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한 여인을 두고 평가를 할 때 그녀의 아름다움을 전혀 주님의 심사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직업과, 또한 사랑 받는 여인이 되기 위해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치장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의 모습은 결코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들의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을 바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남편의 말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조용한 성품을 드러내는데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영의 문제, 즉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내들아ㅍ(벧전 3:5-6)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벧전 3:5-6)

남편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진 아내의 모습은 결코 연약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녀들의 모습에 대하여 거룩한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거룩한 여자의 기본은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아름답고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사랑스럽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대하여 복종하지 못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녀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오늘날의 세대는 많은 이들이 이혼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이혼 사유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이유로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의 말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하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결코 이혼이라는 결과는 낄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부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믿지 않거나, 혹은 아내가 믿지 않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당하거나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헤어져야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실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누어 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아내의 역할을 말하면서 사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즉 자신은 남편에게 소유된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까닭에 그녀는 남편을 다스리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았고, 오직 그의 말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남편에 대하여 주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낮춘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에 대하여 언제나 복종할 수 있는 자세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바로 아브라함의 말에 대하여 언제나 종의 자세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의지나 생각은 감추고 오직 남편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때로 너무나 무모하고 상식 밖의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처소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지는 아브라함의 말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없이 순종하였고, 그 결과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으며, 또한 족장으로서 훗날 거대한 민족의 어머니로서, 또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인으로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상식 밖의 행동을 요구 받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무모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아내 된 여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남편들아(벧전 3:7)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벧전 3:7)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의무 못지않게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의무는 더욱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많은 남자들은 아내에게 대하여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아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이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 까닭에 오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비교적 헌신적으로 남편을 섬기던 아내의 비중이 많아져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이끌어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남편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투었어도, 또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 부득이 떨어져야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남편은 아내의 곁에서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다면 오직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제외하고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부부는 언제나 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내는 약한 그릇에 비교되는 여자입니다. 그릇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다루고 매사에 성의 없이 대하게 된다면 아내는 결국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상처를 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어떻게 행동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매우 소중한 존재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편안하고 잘 살아가기 위한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입니다. 물론 이것을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킬 수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장차 다가 올 세상에서 상속을 얻게 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즉 아내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 받을 자로 여기는 자세를 언제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대하여 가장 중요한 자세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은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언제나 가족들의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도 같은 편견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는 언제나 잠잠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생각들이 여자, 혹은 아내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내에 대하여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벧전 3:8)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벧전 3:8)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교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회원이 되어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제 없이 설교만을

듣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대신하려 한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마땅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한 마음을 지니지 못하게 된다면 불구의 몸을 지니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불구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설령 몸의 한 부분이 잘 못 되었다 할지라도 온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서로를 동정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만일 성도들 간에 서로를 돌보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자신들의 교회는 배를 채우면서도 교회 안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는 매우 인색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것은 실상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전한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제하는 일들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형제 사랑은 어찌 보면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랑의 한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결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즉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독이 될 것이며, 또한 살인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지녀야만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죽어져 가는 혼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지닌 자들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자세는 바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교리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신앙적인 기준에 미달되는 성도가 눈에 띄더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보다 친절하게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비록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더라도 오히려 낮아진 자세로 섬겨야만 합니다. 예의 바른 행동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벧전 3:9)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3:9)

율법의 원칙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의 세상의 모든 법들도 이 원칙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지배해 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분께서 오셨으므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은 지금도 살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 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역할을 다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기초는 바로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다소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통치하고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일정한 법을 정하실 필요가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면 복음은 세상과의 분리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세상과 결별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되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권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장차 다가 올 세상을 준비하고 그분께 받을 상을 얻기 위해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분리한다는 것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 악하게 대하고 욕설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축복하는 것이 바로 분리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분리는 자신들만의 교리로 남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판단하며,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 주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축복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며, 장차 상속을 받게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차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자기 혀를 지켜(벧전 3:10-11)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니(벧전 3:10-11)

성경 안에서 혀에 관한 교훈은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혀에 관하여 많은 교훈이 있는 것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떤 동물을

이용하여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뱀을 통하여 하와를 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했습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입으로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동시에 쏘아 낼 수 있는 특징을 지닌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거짓말을 잘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사탄의 또 다른 별명이 거짓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거짓말을 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한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꾸미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또한 거짓을 말하려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므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건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즉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그가 당시에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였고, 실제로 비록 그들이 약속한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드리기는 했지만 주님께 드릴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짓말에 익숙합니까? 제 아무리 진실한 삶을 요구해도 많은 현대인들은 정직한 생활 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회중들은 자신들이 교회 앞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도 환경이 변하거나 불리할 때 그들의 결정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 다짐을 하고서도 그것을 되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혀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진실한 자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 놓고 그들과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거짓을 일삼는다면 주님께서 귀를 막으실 것이며, 사람들 또한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눈과 귀 그리고 얼굴(벧전 3:11-12)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서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벧전 3:11-12)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는 것은 모든 종교들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종교가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도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의 모양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종교들이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그들 스스로 노력을 하여 그들의 추구하는 신념을 만족시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면 주님은 악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기도하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말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모습을 볼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까닭에 온 몸이 인류의 죄로 가득 채워진 예수님의 몸을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예수님은 부디 이 죄들에 대하여 용서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남아 있다면 제거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나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교제를 원한다면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이미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은 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얼굴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대적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단순히 보시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악의 세력들과 대적할 마음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실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국 우리와 대적해야 하는 입장에 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을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선한 것들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과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I (벧전 3:13-14)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벧전 3:13-14)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양심에 관하여는 성경의 많은 곳을 통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양심이라는 것이 감정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는 성도들에게는 다소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은 숨기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소홀히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양심은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건강한 믿음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 없이 믿음을 승리로 이끌 것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매사에 만사형통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비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고난의 시간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가 올 고난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순간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숙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 올 수 있는 더욱 큰 고난들에 대하여 적응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어떤 시련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결코 지금 당하거나 혹은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만일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당한 고난만큼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없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상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부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오직 노는 데만 정신을 빼앗긴 학생이 성적우수상을 타겠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오히려 행복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들을 결박하기 위해 기대라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받게 될 보상과 선한 양심을 따라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생겨난 선한 양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기에 힘쓰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Ⅱ(벧전 3:15)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벧전 3:15)

선한 것을 따르는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을 든다면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육신의 속성 자체가 악한 것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까닭에 성경은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한 것들이 있겠지만 악한 것들도 무수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선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 내는 일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해 내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단순히 생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고 또한 그 모습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거룩해 질 것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따르는 이들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평생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보듯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며, 장차 다가 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답은 이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실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며, 물질, 명예, 권세, 지식, 이생의 자랑거리들과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계획들과 일들은 언제나 뒷전일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의 영광이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결코 세상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과감히 버릴 것이며, 오직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해 갈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마치 대단한 믿음을 얻게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순간 어린 아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더욱 성숙한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터득해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벧전 3:16-17)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벧전 3:16-17)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선한 길을 따라서 결코 사람들을 해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통하여 유익을 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악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악한 자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그들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날부터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은 곧 마귀의 자녀들과 원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곳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진 원수들에 대한 것도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죽음은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 처지에 있었다면 당장 세상의 법에 호소해도 능히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찬송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많은 곳을 통하여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믿는 자들에게는 참고 견디면 많은 보상이 있게 될 것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동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참고 견뎌낸다면 그는 분명히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충만해 질 것이며, 장차 다가 올 세상에서도 많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 까닭에 주님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벧전 3:18)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게 하심이라(벧전 3:18)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는 우리가 수 없이 들어 온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복음의 기초이자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위하여 기록이 된 것이며, 또한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은 이 사건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복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수없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십일을 금식하시고 나자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여 죽음을 통하지 않고 각종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보다 쉬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모두 예수님께 넘기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죽음의 잔을 받기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형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모든 피를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특정한 부위가 아닌 온 몸에서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온 몸은 채찍에 맞으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으며,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심장을 찔러 남은 모든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일을 위해 쓰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안겨다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너무도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그들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들 이 섬기는 자들 중 누구도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의 첫 번째 열매이시며, 이제 우리도 그 열매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의 날을 고대하며 영광스러운 날들을 고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벧전 3:19-20)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으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벧전 3:19-20)

이 성경 구절은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난해한 구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다면 결코 난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감옥(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구절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성경을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만 선포하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크게 두 가지 결과로 드러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해진 것은 당연히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자들이며,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 받은 자들이었지만 거절했던 자들입니다. 그 까닭에 성경은 구원을 받은 자가 여덟 혼, 즉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으며, 이제 앞으로 당한 심판은 불로 하시게 될 것이라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사람들의 불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도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노아의 가족들이 만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절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물의 심판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고, 그들의 혼들은 모두 지옥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어려워서도 아니며, 모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처럼 비참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 즉 구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노아의 여덟 식구들과 같이 구원의 날에 심판을 피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례(벧전 3:21)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벧전 3:21)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침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온 대상이기도 하며, 또한 그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믿음의

성장에도 큰 방해요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침례를 행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침례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구원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범죄를 하였고, 주님은 그 세상을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살게 되었고,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 역시 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지은 방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또 다른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멸망을 피할 집을 지어감으로써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결코 단순한 의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의식이 구원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 그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침례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례가 아닌 세례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굳이 세례가 아니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침례를 설명함에 있어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곁에 있던 한 강도는 침례를 받은 적 없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침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곳에서 침례에 대하여, 그리고 침례신앙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바로 침례신앙입니다. 침례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담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침례신앙이 있습니까?

하늘로 들어가사(벧전 3:22)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벧전 3:2)

현재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모두가 답을 알고 있는 듯한 질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질문은 사실상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어떠한 신분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바로 그분의 위치에 걸맞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른 편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에 대하여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서는 곧 현재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한 역사를 주관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령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창조에 대하여는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창조의 일에 더욱 많이 관여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인류의 역사와 관련하여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재 역할을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의 죄 문제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보내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내 내신 너희에게 보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면에 함께 자리고 계시며,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 활동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한 속성이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라가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뜻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벧전 4:1-2)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벧전 4:1-2)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곧 육체 안에서 고난 당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대답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만사형통의 삶을 기대하며, 보다 안전한 삶의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고난의 삶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고난의 삶에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서 왕이 되어 통치를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스스로 거부하시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밀알이 죽어 열매를 맺음 같이 자신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고난의 생애를 살아 온 것 같이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 가운데 고난의 길을 피해갔던 자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결박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자신은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고 말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믿음, 그리고 오히려 고난이 닥칠 때 더욱 행복해 지는 믿음의 모습들은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이 고난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결코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큰 절망의 시간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간이 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헛되다는 것을 무수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 올 세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가 올 세상을 준비하는 자는 당연히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만큼 다가 올 세상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 없는 생애를 살았다면 그는 다가 올 세상에서 어떠한 상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이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겠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벧전 4:3)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벧전 4:3)

성경은 이방인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유혹을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해왔던 것들이며, 또한 우리 안에서 좀처럼 버려지지 않는 악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범죄 한 이후로 이성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서로가 벌거벗은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의 옷을 지어 입히셨고, 이후로 인류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몸을 가렸습니다. 몸을 가린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덮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그들은 가려진 몸들을 탐닉하기 시작했으며, 색욕과 정욕으로 인하여 성적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적 타락은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하나님의 기본 원칙인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원칙을 깨뜨리고, 여러 아내를 두거나 혹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두는 행위들을 합법화 시키고,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들에 대하여도 정당화 시키는 관행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물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같이 술은 일반적으로 곡식이나 과인을 발효시켜 만든 것입니다. 즉 고의적으로 부패시켜서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혼미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술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술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적당하게 마시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간의 술이 사람들을 과음하도록 유혹할 것이며, 결국 그들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그들의 부패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환락을 쫓아가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과 상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연회를 찾아 다니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죄들을 따라 다니고, 결국에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이방인들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인색한 자들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는 매우 적극적인 자들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물로 심판을 받은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심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탑을 만들고,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지켜줄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물고기들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것마다 그들의 우상으로 삼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 어느 것도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이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회계 보고(벧전 4:4-5)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달음질하여 것처럼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이에게 회계 보고를 하리라(벧전 4:4-5)

우리의 인생이 회계 보고 된다는 사실 만으로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불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은 이미 세상에서 고난이 예고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장차 자신의 삶을 회계함에 있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방탕 하는 자들의 삶은 결코 자신의 삶이 회계하게 될 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세와 지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히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을 속이고, 때로는 강도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여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회계 보고는 단순한 결산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결산은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회계 보고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는가? 하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스테반과 같은 이는 집사이면서 뛰어난 복음 전도자였지만 오히려 듣는 자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던 자였습니다. 만일 그가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된다면 아마도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집사가 되기까지의 많은 시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지혜로우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던 시간들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통하여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장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들어 줍니다.

회계보고를 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욱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변명을 해야 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거울로 보는 것같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장차 다가 올 세상을 대비하여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어 있는 자들에게 선포된 복음(벧전 4:6)

이런 까닭에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벧전 4:6)

구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 하여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역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 한 인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또한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구원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원의 문제를 말할 때 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곧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성경 안에서 이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이해하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 자체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흙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도 흙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의 물건을 만들어 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도 다만 하나님의 숨씨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 까닭에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당연히 흙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성경 안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호흡은 영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 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한 것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영들을 다시 불러 오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의 대상은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혼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 사람의 본질은 바로 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혼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마음, 지성, 감정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성경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과 육체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며, 참 구원의 길로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벧전 4:7)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벧전 4:7)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약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세상은 다가 올 세상, 즉 주님의 왕국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들도 자신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 까닭에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이라도 유혹하여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처 방법이 보다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수많은 음모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에 대하여 무감각 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가령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의 생일인 성탄절, 이스터의 생일인 부활절, 바알의 축제일인 사순절과 같은 것들은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탄의 문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식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정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정신을 차리고 그것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누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들을 열거하지만 이 지면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깨어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리만큼 강조를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며, 주님과 보다 가까이 함으로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무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이 형식적인 기도로만 일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욱 많은 문제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관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두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분별한 후에 깨어 기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지금 깨어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부끄럼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그 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벧전 4:8)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벧전 4:8)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토록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장 잘 알고, 또한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몸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말을 하면서 ‘무엇보다도’라는 말을 앞세웁니다. 이 말을 앞세우는 이유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가장 우선된 덕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그에게도 결함은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당대에 율법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했고, 또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완벽하게 이행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 청년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비교적 완전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소유, 즉 재산들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완벽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일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일 중에서 결국 재산을 지키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난다면 그것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곳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서기관, 레위인과 같은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그들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보다 완전해지기를 원했고, 그 까닭에 죽어가는 사람을 비켜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어떨까요? 당연히 그들의 행동은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랑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해석되어지거나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조건아래서 행해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일종의 신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조건도 규칙도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들도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위대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서로 대접하라(벧전 4:9)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벧전 4:9)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나누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눔의 삶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남을 대접하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면 그것도 삶의 여유가 없는 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면 당연히 이 일에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은 바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나누는 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일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청지기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결단코 아무런 상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가진 자는 당연히 나눌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선한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세로 남을 대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는 자가 복되다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준다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안에는 이러한 증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대접한 한 과부를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육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양식인 밀가루와 기름을 엘리사를 대접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극심한 가난과 기근 속에서도 그의 향아리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대접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 선한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접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 없이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없이 한다는 것은 그가 남을 대접하되 상대방에게 어떠한 기대나 바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난한 이가 상대방을 대접하면서 즉각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면 그는 실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 일로 인하여 많은 불평을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정직한 대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자의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남을 대접하면서 상대방에서 자신의 신념과 계획들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했을 때 대접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결코 건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가진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남을 대접하는 일에 대하여 인식하지는 않습니까?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는 일들을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벧전 4:10)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벧전 4:10)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물(gift)이라는 단어가 은사라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은사라는 단어는 그것이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느냐에 관계없이 이 두 가지 속성은 모두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물로서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명예나 권세, 물질과 건강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얻겠다고 나선다면 멀지 않아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하늘만 보고 게으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하며, 성실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들이며,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은 더욱 큰 선물을 안겨 주실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어떤 아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스럽고 자신의 생활에 충실한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당연히 신실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은사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지혜와 지혜, 믿음과 능력 행함, 병 고침, 언어와 통역과 같은 것들과 다스리고, 가르치고, 섬기는 것과 같은 것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결코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 가운데 속해 있어야 하며, 그 우리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중들이 모이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자신이 받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서로가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 청지기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바로 이 청지기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여기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선물, 즉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만일 누가(벧전 4:11)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벧전 4:11)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그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들의 말이 평범하며, 생활에 필요한 수단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특별한 존재로서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범죄 하기 전의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입술을 통해서 지어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서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범죄 하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같이 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해야 하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말하는 것이 따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저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진정 저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축복을 한다면 복을 받게 되겠지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만일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같이 그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섬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능력이라는 말이 마치 권위를 행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섬기겠다고 하는 자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려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은 매우 잘 못된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나 섬기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불 같은 시련이 다가 올 때(벧전 4:12-13)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4:12-13)

시련이 없이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성경이 증거하고 있듯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이 없이 장차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 역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은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장차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방주를 지음으로서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 년간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종으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40 년 동안 목자로서 시련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상태였지만 그가 복을 받게 된 것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혹독한 종 노릇을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족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도 시련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형제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은 자였지만 그가 꿈을 이루게 된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 생활을 하고, 이집트의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지낸 이후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시련의 시기가 없었다면 결코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욱 많은 시련이 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산 자입니다. 그 까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결국 낙심하고 좌절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했던 자입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감옥에 투옥되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나 스테반은 그 과정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결국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동일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더욱 명심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영광스러움이 시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자(벧전 4: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벧전 4:14)

어떤 사람이 행복한 자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매사에 형통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이 오히려 힘들어 하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힘들고, 건강하지도 않은 이들이 오히려 자신은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보는 행복의 기준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행복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지식을 추구하는 자라면 당연히 많은 지식을 통하여 행복해 할 것입니다. 명예를 구하는 자들이나 권세를 따라가는 자들도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과 화목한 가정에 대하여 감사하며 행복해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끝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것을 얻고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자도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구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비방을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방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평범한 삶을 산다면 그는 결코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욥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대의 모든 사람에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행복했고, 아름다운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비록 그것이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비방과 조롱이 따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장차 다가 올 세상에서 얻게 될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벧전 4:15-16)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벧전 4:15-16)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고난을 받는 까닭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고난은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극단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는 그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자신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당연히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스테반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설교를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바울과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힘쓰다가 무수히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과 같이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종교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농락하고, 도적질하며, 심지어 살인을 교사하는 일을 저지른 후에 결국 일이 들통 나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자 그것을 고난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답은 그것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극한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까닭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시대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된 상태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 까닭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고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경계하고, 그들과 떨어져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선물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심판(벧전 4:17-19)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벧전 4:17-19)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차 다가올 심판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람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행한 결과들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 그것이 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형벌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반드시 일깨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세상의 법정에 섰을 때 그들의 과거 행적과 사실들을 낱알이 드러내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과거에 대하여 반드시 해명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에 예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보상을 받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은 어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보상은 선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은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생애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그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 받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함으로서 그 댓가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특혜를 받습니다. 만일 그들이 어느 곳이든지 열심히 한다면 다른 이들보다 더욱 좋은(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의 개념도 이와 같이 생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물(은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장차 우리가 심판 받는 날에 보상을 받게 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선물(은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I (벧전 5:1)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자니라(벧전 5:1)

오늘날 목사는 세 가지 직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자와 감독, 그리고 장로라는 직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로는 경험이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지도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장로라고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였고,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여 그의 생애에 오점을 남기기도 했지만 회개한 이후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자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향해가는 그의 모습은 장로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면서 특별히 고난의 증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복음증거에 핵심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교회와 목사, 그리고 예배당 건물 등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인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학문을 총동원하여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의 전도는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가 전한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논리와 가르침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복음 전도의 결실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에 대하여 말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서신을 통해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장로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로로서 또 한 가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로서 살고 있지만 장차 다가 올 세상에서는 영광스러운 날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장로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맞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장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점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장로Ⅱ(벧전 5:2)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벧전 5:2)

장로, 즉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이전에 많은 변개된 성경들이 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감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구절의 변개로 인하여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로, 즉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들이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즉 일단 자신 앞에 있는 양식들을 마음껏 담아 두고 위장에 담겨진 음식물을 다시 꺼내어 먹고 소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 역시 그들에게 말씀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들은 매 순간 삶을 통하여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는 기회가 되는대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들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개된 성경 안에는 양떼를 먹이는(Feed) 일들에 대한 사명을 대신하여 치라(Be shepherds)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예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떼들의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장로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종으로서 그들에게 적절한 양식을 공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 혹은 장로들을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놓고 권위를 행사하려는 자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방종교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에게 의해 변개된 성경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종교들은 지도자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방종교의 영향은 기독교회 안으로 들어와 초대교회로부터 유일한 권위로 여겨왔던 성경을 변개하고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더욱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권위와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먹고 자라야만 하며,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경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장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본분에 맞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장로Ⅲ(벧전 5:2)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벧전 5:2)

장로의 또 다른 역할은 감독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감독의 일이 마치 엄청난 권위를 행사하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독은 말 그대로 어떠한 일에 대하여 그것이 바르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에게 바로 이러한 감독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에게 감독이라는 직분을 부여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독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단순히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바르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한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결코 어떤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을 양떼로 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양떼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결코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목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때로 길을 이탈하기도 하며, 완전히 벗어나 잃어버린 양의 신세와 같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장로와 같은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감독할 대상에 대하여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자가 성도들에게 대하여 한 순간도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모든 모양들에 대하여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근심과 고통, 그리고 모든 행복한 시간들까지도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을 감시하고 간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묵묵히 그들을 돌아보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도들의 가정을 감독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며, 영을 혼란케 해서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진정한 목자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장로로서 바르게 감독한다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제한하고, 그들로 하여금 힘겹게 만들며, 믿음의 삶이 고통의 시간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감독자로서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사역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나 행복하도록 돕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장로Ⅳ(벧전 5:2)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벧전 5:2)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예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들은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며, 또한 성경 안에서도 많은 곳들로부터 증거 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좋은 환경 속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억지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행복한 시간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사명을 되 물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라면 결코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견지 아니한 대언자(선지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나라는 자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의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명령을 거절하고 반대로 오히려 향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그는 향해 도중에 바다 속에 빠뜨려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밤낮을 있다가 나온 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매우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억지로 감당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 한다면 부작용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것, 혹은 자신이 감당해 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억지로 하려 한다면 그는 곧 지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아픔들을 안겨다 주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억지로라는 말과 인내한다는 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비록 힘겨운 것이지만 그것은 소망을 안고 감당하는 것이고,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이 소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자진해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진해서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이 일들에 대하여 결심하고 최선을 다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동기는 당연히 장차 다가 올 세상을 준비하려는데 있습니다. 만일 그에게 남들이 날지 못하는 미래가 없다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된 미래, 즉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보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며, 주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장로 V(벧전 5:2)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벧전 5:2)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까닭에 신실한 사역을 한다는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중단하고픈 생각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매우 선택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의무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많은 곳으로부터 그 증거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제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 가셨고, 그물을 잡고 있는 요한을 찾아 가셨으며, 세금을 걷고 있는 마태를 찾아 가셨으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바울을 직접 만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 부르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셨으며, 양을 치고 있었던 소년 다윗을 부르셔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증거들을 볼 수 있는데, 한 마디로 요약하여 설명한다면 모든 부르심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부르심에 응한 자가 바로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종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를 하나의 직업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사역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각종 기술적인 것들과 행정적인 것들을 배우며, 대형 교회 안에서 마치 직원으로서의 일을 하다가 독립하는 것으로 사역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마치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쯤으로 생각하여 건물을 얻고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을 하며, 마치 손님을 맞는 자세로 모든 준비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정성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때 스스로 좌절하고 심지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종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이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칫 욕신의 정욕이나 개인적인 욕심이 개입되었을 때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욕신적으로 풍족한 삶을 산다거나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떼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 헌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지도자, 즉 준비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섬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장로(사역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장로Ⅵ(벧전 5:3)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 떼에게 본이 되라(벧전 5:3)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방 종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종교 지도자들이 신도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신의 권위를 대신하려 하고 있으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이방 종교의 누룩들이 예수 주님의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상속 백성,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가 계급화 되어 마치 목사나 장로, 혹은 집사와 같은 직분을 갖는 것이 벼슬이나 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초대교회에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니골라 당’은 바로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의 모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계급화 시켜서

군림하려 하는 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경계하고 만일 교회가 이미 누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라면 그들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가족과도 같은 구조를 가진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높고 낮은 것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서로가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힘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비록 계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적당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는 서로에 대하여 결코 군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위해 서로가 헌신하듯이 주님의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오직 양 떼에게 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성경이 사역자를 존경하도록 기록되어 있으니 존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바르게 지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경은 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적절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존경은 결코 참다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에 대하여 존경의 표현을 했을 때 그야말로 존경 받는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장로Ⅷ(벧전 5:4)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벧전 5:4)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자들이 그토록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헌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얻을 수 없다면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을 성경은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관(crown), 즉 왕관이나 면류관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특별한 신분을 나타낼 때 쓰여 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남들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무시당하는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장차 다가 올 세상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관을 얻게 됨으로써 특별한 신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리더라도 반드시 얻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는 장로, 즉 사역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들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한 것들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한 자신도 성도들로 하여금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연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하여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게 영광이 관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서도 많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부를 축적하고, 또한 명예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기도 하며, 또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록 그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게 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게 장차 주어질 상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려 하는 자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과연 사역자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사역자라고 해서 모두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들이 헌신하는 만큼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의 뜻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욕심과 의욕, 그리고 신념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라면 그는 반드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사는 자는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과연 사역자로서 우리, 혹은 우리 주변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아 I (벧전 5:5-6)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벧전 5:5-6)

보는 바와 같이 성경은 젊은 청년들을 향해 특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린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젊은 성인 남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먼저 복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 단순히 장로들에게만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종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젊은이들이 교회 안의 모든 이들에 대하여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젊은이는 가장 활동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종하는 삶을 보인다면 교회는 전체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의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종하는 삶과 더불어 가르치는 것은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가장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고,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칫 교만해 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의로운 일들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로들과 같이 판단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행착오는 그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있는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까요? 그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심지어 성도들 간에도 복종하며, 자신을 낮추는, 즉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열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열정이 결코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귀를 열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장로들과 같이 경험이 많은 자들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젊은이들의 삶이 복종하는 마음과 겸손으로 자신을 무장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아Ⅱ(벧전 5:7)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벧전 5:7)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아마도 도전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도전하고자 할 때 그들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 혹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젊은이로서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분명히 염려와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해로운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하거나 두려움으로 가득한 젊은이들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들에 대하여 그분, 즉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자신의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떠넘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어떠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염려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서 발생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 주변 환경이 그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으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만들 것이며, 또한 주님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까닭에 성경은 이 모든 염려들에 대하여 주님께 맡기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향한 눈을 고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 이집트의 감옥에서 사형수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할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즉 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강건해진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염려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멈추게 만드는 일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안 우리의 주변 모든 상황을 돌보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아Ⅲ(벧전 5:8-9)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벧전 5:8-9)

주님의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은 매우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힘을 역이용하게 되면 주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 까닭에 교회 안의 젊은이들은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언제나 경계하는 자세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진리에 대항하여 마귀는 너무도 많은 거짓 진리, 즉 누룩과 같은 것들을 교회 안에 퍼뜨려 놓았습니다. 그 까닭에 성경을 비취 볼 때 너무도 분명한 거짓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절기들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한 의식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들도 대부분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 설치 된 각종 장식들, 그리고 다양한 운영 방식 등에서 마귀들의 방법을 따라 가는 경우들이 허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들로부터 분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젊은이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젊은이들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주님의 교회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우유부단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넘어가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용서와 관용으로 보여져서 덕이 되기도 하지만 만일 거짓 진리에 대하여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마귀들의 공격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세상 거짓 진리와의 타협을 막고 오직 성경 안에서 바른 진리를 고수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바로 젊은 일꾼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초대교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지켜져 온 것이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젊은 일꾼들이 거짓 진리를 분별해 내는 일에 무관심하고, 또한 마귀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곧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수하는 것,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아Ⅳ(벧전 5:10-11)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벧전 5:10-11)

현신을 위해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찌 보면 젊은이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 바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확고한 자신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만큼 유혹도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세상에 많은 유혹을 견뎌 내야하며,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시험이 있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난이 그들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그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시기를 거쳐야만 하는데, 성경이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젊을 때에 고난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낸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젊을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시간들에 대해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장차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자신을 맡기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와 이집트 감옥에서의 요셉, 그리고 광야를 헤매던 다윗의 모습은 가장 모범적인 삶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께서 부르셨을 때 담대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역사상 고난의 시기가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를 보셨습니까? 물론 현대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 재물이 많고, 명예나 권세를 가진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존경할 만한 가치를 지닌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평가의 기준이 결코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당대에 얼마나 유명한 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과연 그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지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고난의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만일 나이가 들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추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결코 일어 설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고난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넘어지고 힘에 겨울지라도 그들은 일어설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것을 즐기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의 입맞춤(벧전 5:12-14)

내가 너희의 진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 편에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노니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너희와 함께 선택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벧전 5:12-14)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칭찬으로 성도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서신의 말미에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는 말로 글을 맺으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서양인들은 실제로 성도들과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것을 불편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한국인들의 정서로 성경대로 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입을 맞추도록 가르치고 있다면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특히 이성간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가르치게 된다면 더욱 복잡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이 서로가 입을 맞추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도

않는데 입을 맞춘다면 그는 정서적으로 이미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필요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이며, 작게는 이 땅에서 그 왕국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함께 지체가 되어 활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체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만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에 성도들은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껴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이웃,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자들은 서로가 결코 남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품고 서로가 인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불편한 감정을 가진다면 주님의 교회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즐거울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의 바라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벧후 1:1-2)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벧후 1:1-2)

시몬 베드로는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며 사도라는 신분은 오직 그의 주인에 명령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베드로나 바울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명령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오직 주님의 명령이기 까닭에 순종했고, 결국 그는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본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로아로 갔고, 결국에는

마게도니아, 즉 오늘날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따라 간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즉 주님의 뜻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대하여 보배롭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값진 보석보다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미 얻은 자는 반드시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간직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질과 모양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누가 보배로운 것들을 함부로 방치해 둘 수 있을까요? 그는 그것을 분실하거나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중하게 간직하려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거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 자랑할 만한 것을 두고 있다면 자랑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돈이나 명예, 세상의 지식과 같은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벧전 1:3-4)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1:3-4)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라도 그가 하나님의 본성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이미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난 당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역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들의 생애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을 복은 그들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당에서 모든 것을 얻기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복은 장차 다가 올 세상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동안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도 많은 것들을 주시겠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소유로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된 순간부터 우리의 소유는 주님께 맡겨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장차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매우 가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세나 지식과 같은 것에 집착하고 심지어 그 일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으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장차 다가 올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까닭에 그들은 결코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연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에 더해져야 하는 것들 I (벧후 1:5-7)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벧후 1:5-7)

구원을 얻는 조건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결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멸망 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설령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에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으며,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후회하게 될 것이며, 멸망으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이 너무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들이 정해져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의 커트라인을 정해 두고 일정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심지어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을 통하여 그들의 가르침이 매우 잘 못되었다는 것을 증거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만일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본성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단순히 구원을 얻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은 성경이 오직 구원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결코 구원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많은 곳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매우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이 구원받은 사실을 죽을 때까지 추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난 사실을 기억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멈춰버리게 된다면 그는 결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더해져야 할 것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믿음에 더해져야 하는 것들Ⅱ(벧후 1:5-7)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벧후 1:5-7)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더해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먼저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 다 된 것처럼 말합니다. 즉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비참한 상황은 면했으니 이제는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먼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의 행동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믿음을 갖기 전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결코 동경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믿음을 갖기 전보다 더욱 악한 행동을 일삼게 된다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자가 덕을 세워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하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은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느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자,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의 삶에서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날부터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늘의 왕국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까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오히려 더욱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오만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더욱 힘써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는 매우 후한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치 인권 운동가처럼 행동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더해져야 하는 것들Ⅲ(벧후 1:5-7)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벧후 1:5-7)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이 나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동반되지 않은 신앙은 기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바른 진리로부터 벗어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또한 교회 생활에 바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일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선한 일들을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들은 사회적으로 선한 일들을 위해서 힘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교회가 성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서 믿음에 덕을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서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더욱 지식을 쌓는 일들을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 없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지도 못한 자연인들보다도 더욱 위험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 안에서 매우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장차 주님의 교회를 크게 위협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있는 이유도 믿음 없이 지식만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의한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수행하려 한다면 그분의 명령들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서 먼저 지식을 쌓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학교를 보냅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들 안에서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으로 지식을 쌓게 합니다. 바르게 열심히 준비한 자들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실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존경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어릴 적에 쌓은 지식은 평생 동안 삶의 도구가 되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로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에 더욱 노력하여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쌓은 지식은 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매우 풍성한 삶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그들을 현혹해도 그들 자신을 견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음은 있지만 형식적인 생활을 지속하게 된다면 그들은 사탄의 집요한 공격 아래서 많은 혼란 속에 믿음의 삶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지식을 더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지식을 얻는 일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 하듯이...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더해져야 하는 것들IV(벧후 1:5-7)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벧후 1:5-7)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는 말이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내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면 절제는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들에 대하여 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며,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곧 지식과 절제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식이 쌓이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만한 자세를 가지기 쉽고, 자칫 이러한 행동들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하며 사람들이 성숙해질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 앞에서 무지한 자는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더욱 모욕감을 더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좌절감과 더불어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구약의 대언자(예언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대하여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다리 한쪽이 없어 의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에게 ‘저 사람은 다리 한 쪽이 없는 병신이야’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물론 상대방도 매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말을 한 자는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정직하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 말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만일 칼을 가진 자가 절제력이 없이 함부로 사람들에게 휘두른다면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의사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 훌륭한 요리사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식을 쌓아 갈수록 더 많은 절제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는 더욱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는 일에 대하여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식을 쌓아갈수록 더욱 많은 절제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더해져야 하는 것들 V(벧후 1:5-7)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벧후 1:5-7)

인내 즉 오래 참음에 대한 교훈은 이미 성경의 많은 곳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나 되새겨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 같습니다.

인내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욥이라는 인물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게서 인내를 배우도록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당대에 의인이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자였으며, 존경을 받을만한

많은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도 환난을 당했을 때에 초라한 환자로서 매우 연약하며,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로부터도 그는 버림을 받는 매우 불쌍한 처지가 된 것을 보면 그는 결코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간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매우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으며, 비록 이 땅에서 불행해 질지라도 장차 다가 올 세상에서 그는 부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를 가장 위대한 인내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그의 처지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앞에 자신을 더욱 낮추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마치 귀한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참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비록 그 결과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름답게 맺어지지 못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 올 세상에서 얻게 될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인내 즉 오래 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며, 또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 사랑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우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닌 오래 참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한 순간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과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분노의 감정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견디어낸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믿음에 더해져야 하는 것들Ⅵ(벧후 1:5-7)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벧후 1:5-7)

인내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노이며, 또 다른 하나는 경건입니다. 분노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며, 경건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참으면서 복수를 꿈꿉니다. 그 보복의 날들을 위해서 더욱 악착같이 현실을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서 성공의 날들이 왔을 때 자신들의 원수들에 대하여 철저한 응징을 함으로서 또 다른 대적을 만드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환경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나 환경에 있다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이 겸손한 삶의 모습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결코 배워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움을 통해서 경건을 얻고자 한다면 그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훈련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인내의 세월들을 피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적당히 헤롯 정부와 타협을 하고, 백성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양은 경건해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더러운 이익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사실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죽음의 위협과, 낮은 자를 찾아 다니셨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욕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처음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매우 깊은 절망에 빠져서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간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시간이 멈추었을 때 어느덧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인내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코 속지 마십시오. 경건의 삶은 단순한 지식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더해져야 하는 것들Ⅷ(벧후 1:5-7)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벧후 1:5-7)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분리된 삶을 통해서 혼자만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의 이면에는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 까닭에 형제들에 대하여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형제들이 불경건하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결코 경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 창녀들이나 세리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다니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 대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날 경건을 가장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형제들에 대하여는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무관심한 자세로 사는 자들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형제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릴수록 언제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갓난 아이 때에는 배가 고프면 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엄마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배가 고프면 울면서 젖을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때를 쓰고 마냥 요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물론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해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야말로 가장 필요하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형제들에 대하여 친절함, 즉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경건한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만을 생각하고,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용서하고 이해하며,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만일 서로가 반목하고, 분쟁을 일삼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는 주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더욱 성숙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더해져야 하는 것들Ⅷ(벧후 1:5-7)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벧후 1:5-7)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무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외적인 행동으로 판단하고 평가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덕과 지식, 그리고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의 친절을 말하는 것도 그러한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열심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당연히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의 말씀에서 보듯이 믿음에서 시작한 것이 마지막에 도달할 때에는 사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요한 같은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과 같은 경우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사랑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항상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사랑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결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내면에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오히려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점도 그가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까닭은 많은 교회들은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이루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교리와 종교 의식, 그리고 적당한 구제와 선교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합니다. 물론 그들의 방법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있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들 위에 반드시 더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미 바울도 성경을 통해 경고했듯이 아무리 많은 능력과 구제, 그리고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은 이들이 헛된 일에 자신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헌신이 매우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벧후 1:8-9)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한즉 너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벧후 1:8-9)

믿음에 더해져야 하는 것들이 없는 자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눈먼 자여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기복신앙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지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고, 또한 신비스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영적인 삶에 더욱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일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며, 사회 활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바로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설교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배 방법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더해가야만 합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들을 공략할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집요한 공격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분히 무장되어 있다면 사탄은 결코 그들을 공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일을 금식하신 후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신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방어 하셨습니다. 결국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패배하고 물러났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말씀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펴고, 우리들이 가진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끊임없이 접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더해가야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부르심 그리고 선택(벧전 1:10,11)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이렇게 주께서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벧전 1:10,11)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구나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풍성한 삶을 얻기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 방황하며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의 실상을 아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방법을 따라 살게 된다면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calling)을 확고히 해야만 합니다. 이 부르심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바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 부르심에 응했을지라도 이 부르심을 확고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더욱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택(election)하신 것을 확고히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구원의 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인정하지 않는 영속에 관한 교리 등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에 믿음의 발을 내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없이 선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선택 받은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확고히 해야 하는데 이 일들을 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하지만 한번 얻은 구원을 주님의 약속에 따라 결코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넘어짐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믿음 안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기 위해서 이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억하라(벧후 1:12-15)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 주신 것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나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벧후 1:12-15)

베드로는 이제 머지않아 자신이 장막을 벗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까닭에 그는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많은 말들을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자였지만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앞에서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1:5-7)고 했습니다. 그가 지금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정도라면 특별한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매우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는 베드로의 능력 있는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가 대부분의 사역을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회심자를 얻는 설교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믿음에 더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비록 죽은 이후에도 이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가르침 아래 그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다양하고도 많은 교리들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나 목회자들을 향해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가 그토록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기도와 간구, 금식, 병 고침과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토록 기억하도록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벧후 1:16)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 줄 때에 교묘히 꾸며 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벧후 1:16)

사람을 속이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종교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일종의 신화들로 포장하여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참신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역사적인 근거도 오늘날 남아 있는 증거들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똑 같은 자들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증거를 담은 성경은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구약이 메시야가 오실 장소, 방법, 그리고 사역의 완성을 이루는 모든 과정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종교들과는 달리 사실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성경이 더욱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사실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갈 2:4). 그 까닭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회는 순식간에 거짓 진리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진리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들이 스스로 만족했을 때 어느 순간 부패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잠시 방심하는 순간 마귀와 더불어 일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 진리를 포장하고, 그들이 지어낸 말들로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롭게 생각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인색하면서도 거짓 진리, 즉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은 매우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이 경고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기 힘들다는 사실(눅 18:8)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진리보다는 꾸며낸 이야기들, 즉 거짓말이 더욱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외형적인 열매를 안겨다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 결론은 분명합니다. 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바른 진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우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모든 기분이 오직 성경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그 어느 곳에서도 진리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달콤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즉시로 성경을 펴 들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살피십시오(행 17:11).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진리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벧후 1:17-19)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벧후 1:17-19)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일컬어질 만큼 매우 특별했던 자였습니다. 그 까닭에 그는 요한,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사건 이후로 보여 주었던 행동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습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와 더불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밤새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그와 제자들을 함께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기까지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롯 유다를 지목하여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순간에도 그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교훈을 통하여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당황하여 자신의 몸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벌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듣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정작 부활의 순간에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업을 따라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3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녔지만 정작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시행착오를 겪었던 자입니다. 그러한 그가 지금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의 엄청난 파장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성에 의존하여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영광스러웠던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들을 기억하고자 힘쓰고 또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신 계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성경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 말씀들에 주의를 기울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해석(벧후 1:20-21)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벧후 1:20-21)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훌륭한 책쯤으로 이해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성경을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심지어는 성경의 내용조차도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내용으로 변개시키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러한 그들의 노력에 대하여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딤후 3:16). 그 까닭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지식이 풍부한 자들이 성경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목회자들이 저마다 박사가 되어보겠다고 세상의 학문에 열중합니다. 물론 그들이 성경을 배운다고 말하지만 정작 성경은 펼쳐 들지도 않고, 신학자들의 말이나 철학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려 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성경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만으로 풀기 어려운 난해한 내용들을 세상의 학문과 과학, 그리고 철학을 통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자연과 질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본적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지로 맞추려 하는 것이라면 매우 위험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단 종교들의 특징은 바로 성경을 그들만의 방법으로 풀어내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난해한 구절들을 자신들의 지도자(교주)들에 맞추어 예수님을 대신하려 하기도 하고, 사악한 지도자(교주)들은 그 구절을 오직 자신만이 풀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우상화시키려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그들의 교활한 술수에 현혹되어 그들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새로운 계시나 명령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서 성경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원한다면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머리카, 세상의 학문으로 대신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르게 해석되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교사 I (벧후 2:1)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벧후 2:1)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활동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의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이고, 또한 직접 접촉하여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거짓 진리를 말하게 함으로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까닭에 사람들은 올바른 분별력이 없이는 진리와 거짓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들이 가진 두드러진 특징을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죄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가지고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따분하고 지루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도하고, 변개시키며,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異端)은 결코 처음부터 드러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오히려 진리에 대하여 더욱 확신 있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언제나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이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 몰래 들어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러난 거짓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때문에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그머니 진리에 섞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또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토록 터무니없는 주장에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개입된 교묘한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교사들은 존재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펼쳐 들고 항상 깨어 있어 바른 진리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는 자들이라도 파멸에 이르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같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죽기로 예정된 자가 같이 죽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무슨 행동을 하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극단의 방법이라도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계획을 따라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부터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거짓교사 II(벧후 2:2)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벧후 2:2)

어느 세대건 진리는 언제나 외면을 받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가치 있는 것들은 언제나 사람으로부터 천한 취급을 받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결코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하여 위대한 선생들은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그들의 귀를 열어두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귀가 솔깃하여 경청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달콤한 것이며, 때로는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성공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식한 자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성공을 위한 가르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일시적인 힘을 갖게 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좌절의 순간에도 그들 자신 안에 숨겨둔 잠재적 힘을 발산하여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이기도록 도와주며, 더욱 힘을 내서 성공을 향한 열정을 되살리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선생들은 너무도 위대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며,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죽었던 영혼이 벌떡 일어설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매력적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거짓 교사들도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 세상이 결코 멸망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마저도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할만한 우상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매우 매력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세계가 하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면 너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사상으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언어가 하나였을 때 다가 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탑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생들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다가 올 심판을 면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진리를 세상 속에서 찾아내려 하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따라 가는 자들은 거짓 선생을 따라가지만 다가 올 세상에서의 보상과 구원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성공을 바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교사 Ⅲ(벧후 2:3)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벧후 2:3)

거짓교사들이 행하는 방법에 대한 성경의 이 묘사에 대하여 우리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믿는 성도들을 상품 취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과 같이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시대라면 다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비교적 초세기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활동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중세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극심하여 교회가 노골적으로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여 돈을 거두어 들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거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데 성도들을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권세를 얻거나 유지하려는데 성도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중세 교회의 사제들에게는 성도들이 노예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며,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중세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돌아보십시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물질을 쏟아 붓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성도들을 동원하고, 목회자들을 회유하기도 하며, 심지어 자신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집단이 있다면 주님의 교회라도 파괴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의 사역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집단을 운영하는 대표자(CE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옮겨지는 것일지라도 오히려 막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재산에 손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성도를 파송하여 다른 교회에서 더욱 신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사역을 위해 파송했던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훌륭한 교회를 떠나 고난의 길을 걸으려 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두 사도가 걸었던 길은 종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려는 것이었지만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지 어느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거짓 교사들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자신의 생각대로 운영하려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자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역자일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결코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판 I (벧후 2:4)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벧후 2:4)

천사들의 존재에 관한 의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에 관한 지식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천사들이 타락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시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타락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의 창조에서 볼 수 있듯이 천사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로 만들어졌지만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기계적인 복종만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면 죄를 짓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결국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조차도 기계적인 상태에서 복종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합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의 신(神)으로서만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사는 성도들은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같이 웃고, 같이 웃으면서 이 땅에서 바른 길을 찾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타락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옥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옥이라는 장소는 천사의 타락과 더불어 만들어진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은 타락한 천사, 즉 마귀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마 25:41).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그분의 호흡을 직접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분의 몸의 일부로서 사람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삶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하여 그러한 모든 계획들은 깨졌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들을 위해 준비되어진 장소인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딤후 2:4).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더 이상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약속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심판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구원의 복음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Ⅱ(벧후 2:5)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벧후 2:5)

타락한 천사의 심판에 이어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으며, 심지어 심판이 있기 전까지도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드도록 하셨으며, 이 방주는 본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에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이 이르지 못하고 심판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물로 심판이 있었던 그 순간까지 그들은 누구도 방주로 들어가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6 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타락은 결국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의 심판과 더불어 이 땅도 물로 뒤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인하여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던 이 땅은 노아의 여덟 식구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에 있었던 생물들을 데리고 나가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창 8:17).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때에도 그러했듯이 노아의 가족들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도 결국 성경의 계시대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겠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7 년 동안 있게 될 대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환난이 오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환난이 지난 후 새로운 세상, 즉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 될 것입니다. 심판 뒤에 오는 영광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인내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심판Ⅲ(벧후 2:6)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벧후 2:6)

앞서 설명한 천사들의 심판이나 노아의 때에 인류에 대한 심판과 비교하며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그 강도가 매우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기 위한 심판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죄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의 집을 방문하여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자들은 동성연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당당하게 롯의 집 앞에서 천사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모습으로 보서는 아마도 그 도시에서만큼은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성적 타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은 동성연애자들에 대하여 매우 관대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어떤 교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동성연애를 포함한 성적인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곧 간통죄를 포함한 성적 범죄에 대하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성적 타락을 오히려 부추기를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제 2 위의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미 사람들의 정서와는 관계없이 심각한 성적 타락과 더불어 가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재앙이 임하게 되는 현상에 대하여 자연적인 재해, 즉 기근과 지진과 같은 것이나 전쟁과 각종 난리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성적 타락에 대하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멸망의 증거들을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성적 타락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롯의 가족을 보십시오. 그들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멸망의 성이었던 소돔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 이후에 롯과 두 딸들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결국 근친상간으로 인하여 롯과 두 딸 사이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롯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성적 타락에 무감각하게 된 그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 타락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롯(벧후 2:7-8)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 내셨으니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느니라 (벧후 2:7-8)

어떤 사람들은 롯이 의롭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떠날 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자였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딸들과의 사이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았던 근친상간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의로운 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에 관하여 구약에서 볼 수 없는 사실들을 베드로는 매우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가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를 통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롯의 환경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믿음의 삶을 사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살았을 때에는 비록 광야에서 나그네로서 살았지만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으로 보기에 풍성한 곳에서 안주하고 살아가면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곳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멸망의 땅에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믿음의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더욱 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히 롯의 시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세대건 성적 타락은 가장 대표적인 타락의 모형입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서나 타락된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TV 나 인터넷, 심지어 거리의 광고나 사람들의 옷차림 등을 통해서도 이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개방되고 자유스러워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성적 자유가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성적으로 매우 자유 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눈으로 보기에 좋고 매우 풍성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눈을 떠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안주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일지언정 행복한 마음으로 순종할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동안의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며 안주하려는 자세는 우리를 더욱 큰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걷는 자들(벧후 2:9-11)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멸할 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을 모르고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벧후 2:9-11)

믿음 안에서 걷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시고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바이며,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너무도 많고, 심지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부끄럽게 서게 될 사람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먼저 염치가 없는 자들로 소개합니다. 염치가 없다는 말은 곧 교양이 없어서 체면을 차릴 줄 모르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막무가내로 자신의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결코 타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는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가 자신의 고집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경건하고, 덕스럽게 행동할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를 안겨다 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육체를 따라 걷는 자들은 언제나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뜻, 즉 사람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자기의 뜻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아마도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걷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다 오는 결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향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더욱 죄인의 길에서 악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경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멸망의 길인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 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위엄 있는 자들에 대하여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위엄 있는 자들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자들, 즉 천사들과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과 여기에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그들은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려 합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 받고 존경 받아야 할 자들이지만 그들은 이유 없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육체를 따라 사는 그들은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짐승 같은 자들(벧후 2:12-14)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도록 지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므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므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속임수로 즐기니 점과 흠이요 또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벧후 2:12-14)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을 마치 동물과 같은 존재일 것이라고 믿는 이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짐승과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거짓교사들에 대하여 동물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우 풍족하고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들의 본성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며,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그들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2000 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 핍박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명분이 없이 고통을 안겨다 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롱하고, 고문을 하며, 심지어 죽이까지 했던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철저한 마귀들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심각한 부패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된 삶에 대하여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속임수를 즐긴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요, 마귀들은 속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물론 일차적인 책임이 하와에게 있었겠지만 결국 속이는 자 마귀의 꾀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속성들이 사람들의 혼을 지배하여 사람들 또한 속이는 자로 둔갑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변명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합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많은 죄들로 인하여 저주받을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사람들을 속이고, 남의 것을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더욱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향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발람의 길(벧후 2:15-16)

그들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삶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벧후 2:15-16)

성경 안에서 발람은 거짓 대언자의 대표적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향한 자입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천사들이 그의 길을 막았고, 나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모압으로 가는 것을 멈추려 하였지만 그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나귀를 때리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나귀는 입을 열어 사람의 음성으로 말했고, 그 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민 22:1-41). 이후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결국에는 대언자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와 관련하여 매사에 잘못된 일들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가령 잘못된 가르침을 표현할 때 발람의 교리(계 2:14), 어떠한 잘못을 행할 때 발람의 잘못(유 11)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그는 성경 안에서 대언자로서의 인생을 살다 간 자 중에서 가장 불행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손에 든 자들에게 매우 큰 교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사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발락의 초청을 거부해야 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고, 발람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주님에게로 다가가 발락에게 가기를 소원하였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발람은 많은 재물과 명예에 탐이 나서 모압으로 향하였지만 나귀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심지어 분명한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을 적용시키려 합니다. 오늘날 많은 동성애자들, 그리고 이혼자들, 성전환자들, 마약중독자들, 그리고 타락한 문화를 전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사용하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사역자로도 부족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령 오늘날 미국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사가 되어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이지만 그들이야말로 발람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명하고, 자신을 숨기려 하는 발람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러한 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물 없는 샘, 밀려다니는 구름(벧후 2:17)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벧후 2:17)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공급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붙들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조건에는 터무니 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들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마치 물 없는 샘과 같다고 성경을 지적합니다. 샘에 물이 없다면 그것은 샘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곧 이 물 없는 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라면 더욱 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에게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목마른 사람이 샘을 찾았을 때 그 샘에 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종전에 목이 마른 상황보다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생명을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는 아마도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 특히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언제나 마음 안에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히 채우는 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또 하나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결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 대언자들에 대하여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서 달콤한 말들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관계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경조차도 바꾸어 버리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전도자들이라면 그들은 언제나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그들은 언제나 성경을 잣대로 하여 마귀의 속임수들을 통해 쓰러져 가는 세대를 바로 잡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준이 없다면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집을 건축할 때 올바른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집을 짓는 자가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따라서 집을 지어간다면 그 건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른 설계도와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경을 기초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그에게는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피어내는 자들(벧후 2:18)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피어내느니라(벧후 2:18)

거짓대언자의 매우 두드러진 특징은 잘못하며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 대하여는 매우 인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죄의 구덩이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하게 된 자들에 대하여는 관심에 없고 오히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만 관심을 두고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예들을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각종 기적을 행하기도 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가롯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며, 성경을 들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험이 닥쳤을 때 결국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율법적이어서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매우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결코 세상에서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해진 영혼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망 가운데 놓인 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당연히 세상의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향해 외칠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은 그들을 살려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만들거나 혼란하게 만들어 그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시험 가운데 몰아넣는다면 그는 마귀에게 속한 거짓 복음전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끊임없이 마귀는 그의 활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특히 그는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거짓 복음 전도자들을 심어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보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언제나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손에 들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언제나 깨어 있는 자세를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부패의 종이 된 사람들(벧후 2:19)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이는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라 (벧후 2:19)

주님의 일을 하려는 자마다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잘 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잘하려는 자신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지칭할 수 있지만 보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돈이나 명예, 권세나 세상의 지식과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만일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려는 자들이 그 아래 지배를 받게 된다면 마귀는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것을 이용하여 분쟁을 일으키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이 있고, 그들이 소속된 기관들이 있으며, 보다 넓게는 국가가 있고, 더욱 깊게는 영적인 지배 아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이 지배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설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작은 지배자들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삶의 최종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몸이 끝나는 날까지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이 그 수명을 다해도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풍성한 삶은 이 영혼을 지배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속이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 만으로 만족시키려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매우 만족할 만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대부분은 마귀의 지배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자들은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언제나 하늘에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결코 평가할 수 없는 기준일 수 있습니다. 장차 주님을 만나 볼 그날에 그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성공적인 삶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또한 우리 자신을 오직 주님의 지배 아래 둘 수 있도록 경건의 삶을 지속해야겠습니다.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선 자들(벧후 2:20-22)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후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리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겨진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벧후 2:20-22)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지식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지식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유지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무시하고 오직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더욱 위험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가 그러한 발상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은 결국 그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복음과 전혀 상관 없는 열심을 가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자들이 되어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복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나가게 되었을 때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복음의 변질을 유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차라리 그들이 거룩한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마귀가 매우 사용하기 좋은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만한 칼을 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무사히 넘기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을 내세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개나 돼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자들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결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생각(벧후 3:1-2)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두 번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벧후 3:1-2)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순수한 생각 안에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함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도덕적인 완전함을 추구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세상의 삶에 때가 묻지 않은 상태를 순수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른이 되어도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순수한 생각을 갖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 사도들에게서 받은 명령, 즉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의 어디에도 순수한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시 12:6, 119:140).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게 순수한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당연히 순수한 것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밭에 씨가 부러지면 그 씨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됩니다. 또한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도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누군가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기를 고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열매는 어떤 씨인가? 그리고 어떤 나무가 심겨졌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받입니다(마 13:19). 만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는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면 그는 결코 순수함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순수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대에 마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수성을 잃게 하기 위해 수많은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말씀을 변개시키는 작업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또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거짓 교리를 가르쳐 성경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일부의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과 교회의 권위 아래 묻어두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성경이 마치 전설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곧 그들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들이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결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순수한 생각으로 순수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웃는 자들(벧후 3:3-5)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터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벧후 3:3-5)

모든 세대에 걸쳐서 마귀는 그 활동을 멈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이후로는 그 활동이 더욱 왕성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장소마다 나타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까닭 없이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성경이 기록한대로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기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매우 불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맛을 보고 돌아선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복음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영접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생명 없는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언제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 맞게 복음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대 환난은 없을 것이며, 또한 천년왕국도, 새 하늘과 새 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천년왕국이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비록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어도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활동을 하셨으며,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창 1: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이 땅에 6 일에 걸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후에도 인류는 죄 가운데 살았고, 그 죄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만을 제외한 그들은 멸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때 이후로 이 땅은 여전히 보존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지만 이 세상도 역시 곧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많은 곳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비웃는 자들, 곧 마귀에 속한 자들은 계속해서 이 땅은 영원할 것이라고 현혹합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자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사실은 복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하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곧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땅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 마음을 두고 거짓 교리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멸망의 날(벧후 3:6-7)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벧후 3:6-7)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물로 인한 심판이 창조 이전의 세상인지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를 설명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전에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은 타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천사들의 타락에 관한 것은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 관한 것은 오늘날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에 여전히 숙제가 되고 있고, 사람의 타락에 관한 부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죽음이 오고, 멸망이 구체화 되어 나타난 것이 노아의 때에 나타난 홍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의 심판이 천사의 타락 이후에 한번,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또 한 번 있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추정하지만 성경의 주된 관심은 과거에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앞으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하여 두 종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과, 또한 이 땅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사람들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많은 에너지들을 소비하며, 점차 자연 생태계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인간 스스로가 파괴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사탄의 음모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귀에 대고 “너희들은 이 땅이 멸망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경 운동가들을 동원하고, 또한 거짓 교리로 무장한 거짓 선생들을 동원하여 이 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도전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멸망이 결코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이 일시에 폭발하면서 멸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환경 파괴로 인하여 오존층이 붕괴되어 인류가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제회의에서는 평화와 환경을 주제로 토론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오늘날의 현실을 돌아본다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전쟁도, 환경도, 문화적 차이도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먹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문화가 너무나도 노아의 시대와 흡사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루를 보다 즐겁게 육신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웃도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파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둔 곳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벧후 3:8-9)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8-9)

하나님의 시간에 관하여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것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존재했었던 시간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시간들은 계산하기조차 족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한다면 인류가 가진 약 6000 년의 시간은 보잘것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는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시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맞추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 안에 숨겨진 숫자들을 임의로 분석하고 계산하여 종말의 때와 재림의 때를 예언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과거에 많은 이들이 그러한 거짓 진리들을 가르쳤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으며,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이 타락해져 가는 과정들과 성경의 예언대로 민족과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선불리 말할 수 없는 것은 최종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이 땅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늘로 들림 받고 세상이 멸망을 당하며,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날들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를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멸망을 당할 정도로 타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참으심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범죄하며 살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분 안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의 인내를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참으심이 지속되고 있는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속히 그분 안으로 돌아 올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벧후 3:10-14)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벧후 3:10-14)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저마다 종말에 대한 징조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 중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예언하면서 각종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종말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지목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모두 불태워지는 그날은 모두가 예언하는 것과 같이 예상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둑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즉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시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시간에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이러한 시간들을 말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는 가르침은 종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대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경고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장차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 그것은 결코 한 순간에 완성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속이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거룩한 행실만 있으면 마지막 날에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잘 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우리 안에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은 반드시 생명을 지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 땅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따라 모든 것이 녹아져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장차 다가 올 세상,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라면 결코 이 좌절하거나 근심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파멸에 이르는 자들(벧후 3:15-17)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벧후 3:15-17)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과 건강, 그리고 가정과 각종 범죄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마귀의 무기는 충격적이기도 바로 성경입니다. 그 까닭에 실제로 성경은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성경의 종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저마다의 명분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여 수백 종류의 성경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성경들이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리에 근거하여 성경을 삭제하고, 원래의 뜻들을 변개하여 사람들에게 읽도록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만일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이 삭제되고 없는 구절이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부인하고,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성경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하여 그분의 인격을 부인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은 마치 성령님을 하나의 물질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아라!”라고 말하며, 성령님을 물건 던지듯이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것은 그가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 보다는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읽고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른 성경을 그들의 손에 들려지기를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소위 난해 구절이라고 일컬어지는 깨닫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을 대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주었을 때 이해하지도 못할 말씀들을 기록해서 읽도록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깨달을만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 구절들에 대하여 억지로 해석하려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행동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곧 육신적으로 성경을 풀어보겠다는 의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은 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영으로만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어떤 이들은 매 순간 기도하고 영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풀어내는 일차적인 방법은 성경 스스로가 말씀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깨달음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며, 언제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설계하려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알고 파멸로부터 자신을 건져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권면(벧후 3:18)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벧후 3:18)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매우 일상적이고 단순히 인사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마디의 인사는 실제로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과 종교와 매우 차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행위에서 나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것(엡 2:8-9)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노력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그들의 구원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를 더욱 갈고 닦으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육체적인 모든 욕심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 거짓 선생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헛된 욕망을 품게 하고, 우리가 품은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은혜 안에서 자라는 성도들이라면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지식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 안에서 사노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는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할지라도 주님이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그릇된 길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지식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을 얻은 일에 대하여 매우 게으릅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도 그들의 책상 앞에서 간단히 읽고 추측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어버리려 합니다. 그들은 지식을 얻어가는 일들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고 신중함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대하여 확인의 절차를 무시한 채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려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매우 좋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는 절제하고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져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